

SBS 금토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3

시즌 1, 2 흥행
뛰어넘는다

4월 28일(금) 밤 10시 첫 방송

〈낭만닥터 김사부〉시즌 3가 4월 28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닥터’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괴짜 천재 의사 김사부(한석규 분)를 중심으로 휴머니즘 가득한 스토리, 촌철살인 사회 메시지를 선사하며 많은 이들의 인생 드라마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 방송된 시즌 1은 최고 시청률 27.6%, 2020년 방송된 시즌 2는 최고 시청률 27.1%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시즌제 드라마로 우뚝 섰다.

시즌 3 역시 시즌 1, 2를 함께한 강은경 작가, 유인식 감독이 손잡는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글로벌 히트를 이끌었던 유인식 감독과 〈제빵왕 김탁구〉, 〈구가의 서〉, 〈가족끼리 왜 이래〉, 〈여왕각시별〉 등 작품마다 대박 신화를 쓴 강은경 작가는 완벽한 호흡으로 시즌 3의 작품성을 책임진다.

또한 시즌 1, 2 메가 히트의 선봉장인 배우 한석규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진정한 스승 김사부 역으로 나선다. 여기에 시즌 2 성공의 주역 안효섭과 이성경도 가세했다.

시즌 2에서 안효섭은 ‘수술 천재’로 불릴 만큼 재능을 갖고 있지만, 불우한 환경 때문에 의술은 그저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시니컬한 외과 의사 서우진 역으로 출연했다. 서우진은 김사부를 만나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성경은 시즌 2에서 주위의 칭찬과 기대 속에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으나, 수술 올림증으로 방향의 시간을 보냈던 차은재 역으로 분했다. 돌담병원으로 쫓기듯 내려온 차은재 역시 김사부를 만나 수술 올림증을 극복하고 진짜 의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밖에도 드라마 속 돌담병원 세계관을 잇는 배우들이 시즌 3에 대거 합류해 기대를 높이고 있다. 수간호사 오명심 역 진경, 행정실장 장기태 역 임원희, 프리랜서 마취과 담당의 남도일 역 변우민, 김사부와 대립하다가 뜻을 같이 하며 외상센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박민국 원장 역 김주현, 박민국의 총직한 부하 양호준 역의 고상호도 돌담병원에 남아 시즌 3를 함께한다. 또한 응급실을 든든하게 지키는 ‘정쌤’ 정인수 역 윤나무, 이성보다 빠른 더 사랑하는 ‘빠쌤’ 배문정 역 신동욱, 응급의학과 ‘아름쌤’ 윤아름 역 소주연, 눈치백단 간호사 주영미 역 윤보라, 제2의 오명심을 꿈꾸는 간호사 엄현정 역 정지안 등이 극을 더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지난 시즌 2에서 거대 재단으로부터 독립한 돌담병원이 ‘돌담의료재단’을 설립하는 엔딩이 그려졌던 만큼, 3년이 흐른 뒤 김사부와 돌담병원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제작진은 “여전히 〈낭만닥터 김사부〉를 기억하고 기다려주시는 많은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제작진 및 배우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많은 위안과 감동을 선사할 〈낭만닥터 김사부 3〉는 4월 28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복수대행씨-비스

2023 최고 흥행작 모범택시 2 화제 속에 종영

전 채널 2049시청률 1위

4월 15일(토) 종영한 <모범택시 2>(극본: 오상호, 연출: 이단)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 2049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긴 기다림 끝에 돌아온 <모범택시 2>는 매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며 시즌 1을 넘어섰다.(표1 참고) 3회 방송부터는 당일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6회 방송부터는 한 주간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2049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모범택시 2>가 인기를 끌자, 재방송마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3월 25일(토) 방송된 10회 본방송은 6.8%, 그 직전에 방송된 9회 재방송은 3.2%를 기록, 당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 <모범택시 2> 10회와 9회가 나란히 2049시청률 1, 2위를 차지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쾌속 질주를 이어간 <모범택시 2>는 2023년 현재까지 방송된 전 채널 전 프로그램 중에서 2049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안방극장 최고의 흥행작으로 이름을 올렸다.(표2, 3 참고)

<모범택시 2>는 K-콘텐츠 화제성 분석 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서 발표한 드라마 TV 화제성 1위는 물론, WAVVE와 쿠팡플레이 등에서도 인기 1위를 이어갔다. 또 아시아 최대 OTT 플랫폼 Viu에서 홍콩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전역, 중동과 아프리카 등 16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 1위에 올랐다. 해외 드라마 리뷰 사이트인 마이드라마리스트(MyDramaList)에선 평점 8.8을 기록하며, 방영 중인 K-드라마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범택시 2>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제 범죄 피해 사례들을 소재로 다뤄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는 한편, 현실에서보다 더 파란만장한 응징으로 카타르시스를 안겨준 데 있다. 또한 김도기가 복수를 의뢰받은 사건에 맞게 취업준비생, 무당, 선생님, 시골 청년 등 ‘부캐’(부가 캐릭터)로 변장해 활약하는 모습이 커다란 재미를 주었다.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부캐를 살려낸 이제훈은 물론, 시즌제로 가면서 더욱 끈끈해진 무지개운수 사람들의 재미도 드라마 인기엔 한몫했다.

스튜디오S 흥성창 제작국장은 “사적 복수, 정의구현을 주제로 한 드라마는 많지만 <모범택시>는 무거운 주제를 코믹한 요소로 버무려 유쾌하게 풀어낸 게 주효했다. 시즌 2는 기획 단계부터 김도기의 부캐를 시청 포인트로 잡았는데, 김도기의 다양한 부캐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모범택시>는 시즌 3 제작을 확정 짓고, 곧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범택시 1, 2> 시청률 비교		닐슨코리아/수도권 기준
	TOTAL	13-59세
모범택시 1	5.46	13.55%
모범택시 2	6.40	15.87%

드라마 부문 시청률 TOP 5 (2023. 1. 1 ~ 4. 16)			
순위	방송사	프로그램명	2049시청률(%)
1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2>	6.40
2	KBS2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5.29
3	tvN	<일타스캔들>	5.20
4	SBS	금토드라마 <법편>	3.57
5	JTBC	토일드라마 <대행사>	3.40

전체 프로그램 시청률 TOP 10 (2023. 1. 1 ~ 4. 16)			
순위	방송사	프로그램명	2049시청률(%)
1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2>	6.40
2	KBS2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5.29
3	tvN	<일타스캔들>	5.20
4	MBC	<나혼자 산다>	4.63
5	SBS	<미운우리새끼>	4.54
6	tvN	<서진이네>	4.41
7	SBS	금토드라마 <법편>	3.57
8	JTBC	토일드라마 <대행사>	3.40
9	SBS	<런닝맨>	3.21
10	tvN	<유 퀴즈온더블록>	2.57



“전문성과 따뜻함이 어우러진 팀워크”

- 경영본부 경영국 재무팀

매출 1조, 영업이익 1,400억, 작년 한 해 동안 SBS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숫자이다. 재무팀은 이 소중한 숫자를 정하고, 움직이고, 알리는 팀이다.

재무팀의 회계 파트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회계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작성한다. 이 정해진 숫자로 우리의 성과 급도 산정되고, 국가에 세금도 납부한다. 복잡한 회계 기준과 세법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3명의 회계사와 함께 회계/세무 분야에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

자금 파트는 돈을 움직인다. 우리의 통장에 안전하게 월급이

꽃피도록, 투자도 하고, 필요하면 대출도 받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법인카드와 외화를 관리하기 위해 카드사, 은행과도 긴밀하게 소통한다. 수천억의 돈이 들고 나느라 SBS 내의 은행이다.

IR/공시 파트는 주식회사 SBS의 기업 가치를 외부에 알린다. 공시를 통해 우리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가를 부양한다. 증권사를 한데 모아 기업 홍보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응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세무조사, 외부감사, 방통위 조사 등 숫자와 관련된 외풍에 대응하는 것도 재무팀의 주요 업무이다. 이러한 조사가 있을

때마다 팀원 모두가 똘똘 뭉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자의 전문성과 끈끈한 팀워크로 SBS의 입장을 대변하고 방어해 왔다.

위의 모든 일들은 우리 구성원 전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일한 것들을 숫자라는 언어로 바꾸어 하는 일들이다. 차변, 대변, 예수금, 대금금, 전표를 작성하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과 어지러운 숫자들로 짜증이 날 때도 있겠지만,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숫자들이라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상현 유우정 우규호 팀장 좌수환 강다형 차인욱 김춘영 허정희 최민아 이재혁



“SBS의 ESG는 구성원 모두 함께 만들어야”

- 대외협력실 정책팀 조성원 ESG 담당



ESG란 무엇인가?

기후 변화는 오래전부터 화두였지만 폭염과 폭우 등을 겪고 나서야 심각성을 절감하게 됐다. 빈부격차나 불공정, 공동체 약화 같은 사회적 문제들도 어느 순간 견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을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등장한 개념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즉 ESG이다. 유럽과 미국은 각 기업이나 기관의 ESG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속속 만들고 있는데 이 기준은 투자자의 지침이 되고 추가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올해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평가에도 포함되고, SBS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기에 정부의 의무공시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기업은 미디어를 통해서 ESG를 해오지 않았나?

물론이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ESG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거버넌스가 투명한가도 함께 중요하다. 프로그램 잘 만드는 것과 함께, 기업 경영 차원의 준비도 필요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거창하지 않다. 다른 국가나 기업들 사례를 보면 종이 사용량 줄이기, 분리배출 잘하기, 구성원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제도 마련, 심지어 탕비실 운영 지침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 프로그램 제작 차원에서는 세트의 재활용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 등도 포함된다. 물론 SBS는 미디어기업인 만큼 뉴스나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과 사회

적 책임 등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우선이다.

현재 SBS의 ESG 경영 상황은?

2월 1일부터 업무를 맡았는데, 동료들을 만나며 매일 놀라고 있다. 노사 화합을 위한 각종 제도와 기구들이 잘 준비돼 있고, 자산개발팀은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발생량 등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다. 교양본부가 묵묵히 이어온 <물은 생명이다>, <희망TV>,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외부에선 대표적 ESG 활동으로 꼽더라. 세계적 수준의 환경 다큐는 말할 것도 없다. <골때녀>를 통해 젠더와 세대 다양성의 화두를 던진 예능본부는 올해도 재미와 의미를 합친 환경 대기화를 기획하고 있다. 미디어기술연구소를 비롯한 기술 부문은 시청자 만족을 위해 AI를 활용한 각종 기술을 개발 중이다. 스튜디오S를 중심으로 최근 제정한 드라마제작 가이드라인도 ESG에 부합한다. 디지털뉴스랩 스브스뉴스팀은 '175플래닛'이라는 에코-커머스 브랜드를 운영하며 SBS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SBS는 이미 ESG를 실천 중이다.

SBS의 ESG 전략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

외부 민간기관 평가를 보면 SBS는 환경(E)과 사회(S)점수가 낮다. 평가기관에 물어보니 공개된 것이 없어 알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반면 거버넌스(G)는 등급이 높는데 지난해부터 재무팀에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발간해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 기관과 함께 ESG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일을 시작했다. 특별하지 않다. SBS가 실시 중인 제도들과 제작해온 프로그램의 성과 등을 모아 ESG 가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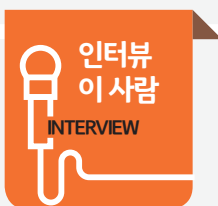
맞게 재정립하는 작업이다. 이 내용들은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SB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SBS가 ESG적으로 얼마나 앞서는 회사인지 알릴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두근거린다.

지금껏 하던 일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맡았다.

1994년에 공채 4기 기자로 입사해 29년 차다. 도쿄특파원과 경제정책데스크, 사건데스크, 뉴스제작2부장, 8뉴스부장, 경제부장 등을 거쳐서 비디오토크에서 3년 근무했다. 특히 미래부에서 4년 근무하는 동안 SDF와 미래한국리포트를 준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ESG 업무를 하는 데 큰 자산이다.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SBS는 ESG적으로 매우 앞서 나가고, 선한 영향력과 소셜 임팩트가 높은 회사이다. 그걸 증명할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다. 최근엔 SBS 30년사를 꼼꼼히 보면서 ESG적인 요소들을 추리는데, 그걸 보면서 SBS가 그동안 얼마나 ESG를 실천해 왔는지 실감한다. 선배들이 만들어 오신 좋은 미디어를 지속가능한 회사로 만들어 후배에게 넘겨주는 일, 그리고 우리 사회와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ESG 업무이다. 'SBS의 ESG는 이것이다'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다. SBS만의 ESG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SBS가 기후 문제에 애쓰고 있다는 것 보여주겠다”

- 장세만 환경 전문기자(보도국 산업과학팀)



전문기자란?

기자들은 근무 여건상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기 쉽지 않다. 또 시간 제약 등 방송뉴스 포맷상 심층적 내용을 담기 어렵다. 그런데 갈수록 일회성 뉴스보다 사안에 대한 핵심과 본질을 충분히 짚어주는 심층적인 뉴스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우리 회사에서도 몇몇 주요 분야에서라도 특정 기사를 키워서 해당 분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널리즘의 비전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북한(안정식), 통일(김태훈), 의학(조동찬), 문화(김수현), 환경 등 5개 분야에 전문기자제를 도입했다.

환경 전문기자가 된 계기는?

2001년 입사 후 여러 부서를 돌았다. 1~2년 주기로 출입처를 바꾼다는 게 기자로서 식견을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 관련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전문성에 대한 갈증이 커질 때쯤 보도본부에서 전문기자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침 환경을 담당하며 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문제에 관심이 커졌던 터라 지원했고 2018년 '예비' 전문기자가 됐다. 2019년에 회사의 지원으로 영국 런던대 로열 할로웨이 대학원에서 '지속가능성과 경영'을 공부했다. 2020년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환경 전문기자로 발령받았다.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는?

런던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이 있었다. 유학 중 주요 관심사였던 '탄소' 문제가 뒤늦게 우리나라에서도 당면과제가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엔 '환경 문제' 하면 자연생태와 수질, 대기질 등이 주요 이슈였는데, 지금은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인 초대형 이슈로 부각됐고, 그 대응책으로 탄소 문제에 대한 해법이 가장 큰 과제다. 앞으로 꾸준히 제가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관련 보도로 제17회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KBCSD) 언론상을 받기도 했다.

지속가능발전학이란?

2차 대전 이후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오로지 성장만을 생각하는 경제성장은 문제가 있고, 그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의 욕구 충족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다. 환경과 생태계 보호, 자원 관리, 경제 발전 및 사회적 공정성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또 이런 흐름에서 태동한 개념이 ESG다. 2015년 UN에서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 목

표) 17개를 공식화했다. 이게 곧 지속가능발전과 ESG의 헌법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각 나라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고 규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030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매년 ESG 공시 의무가 생긴다.

조성원 ESG 담당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될 것 같다.

우리 회사 ESG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발 벗고 나서겠다. 방 송평가 점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사회 흐름상 시청자들의 지속가능성과 ESG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다. 보도에서는 제가 책임이 크기 때문에 기후 시리즈 등을 통해 SBS가 애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 앞장서겠다. <8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다.

SBS 디지털 뉴스 라이브 스튜디오

SBS NEWS DIGITAL

STATION BLUE

오픈



SBS 디지털 뉴스 라이브 스튜디오, '스테이션 블루'(STATION BLUE)가 오는 5월 2일(화) 문을 연다. 목동 사옥 19층에 자리 잡은 '스테이션 블루'는 TV 방송용 스튜디오와 부조의 기능을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한 디지털 전용 스튜디오이다. 스테이션 블루는 RGB 조명 방식을 채택해 콘텐츠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스튜디오 배경 설정이 가능하다. 또 별도의 부조장실을 갖추고 있다. NQC로 송출되는 뉴스 현장을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로 연결하고 부조에서 스튜디오와 현장을 편리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 신속하고 풍성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다.

하루가 다르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스테이션 블루의 완공으로 SBS 뉴스 채널 332만 명, 비디오머그 124만 명, 스포츠머그 31만 명의 구독자를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었다.

5월 2일(화) 오픈 특집방송에서는 SBS 디지털 뉴스의 출발, 그때의 설렘과 열정을 되새겨보고, 또 한 번 크게 도약할 SBS 디지털 뉴스의 내일을 이야기한다. 또한 SBS 최고의 유튜브 경제 토크쇼 '경제자유살롱', 비시즌 정치 컨설턴트 '스토브리그' 등 대표 프로그램들을 라이브로 송출한다.

박진호 뉴스D스튜디오 총괄은 "동료 선배들의 전사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 보도본부 유관 부서와 함께 미디어전략팀, 미디어기획팀, 미디어IT팀, 자산개발팀, A&T 아트팀과 3팀, 보도운영팀 등에서 헌신적으로 애써 주셨다. 특히 남승훈, 김원기, 전성태, 하태운, 조영훈, 이순현 님, 또 '스테이션 블루' 브랜드 디자인을 담당해준 한동훈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7일부터 진행된 스튜디오 이름 공모에 26명의 사우가 참여했다. 제안작들을 바탕으로 실무진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스테이션 블루'로 결정되었다. 주요 후보작을 제안해준 7명의 사원에게는 상품이 전달되었다. '스테이션 블루'는 푸른 망망대해 같은 디지털 플랫폼 세상에서 SBS 뉴스 디지털 콘텐츠를 펼쳐내는 중심 거점이자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공생의 법칙>, <가디언즈 오브 툼드라> - 뉴욕 TV&필름 어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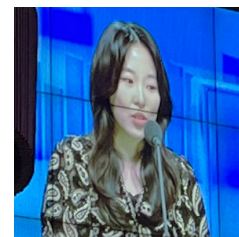


<공생의 법칙>과 <가디언즈 오브 툼드라>가 현지 시각으로 4월 18일(화)에 열린 2023 뉴욕 TV & 필름 어워즈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뉴욕 TV&필름 페스티벌'은 1957년 창설된 세계적 권위의 시상식이다. 뉴스,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 16개 부문에 매년 50여 국가가 참여해 수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공생의 법칙>(연출: 김진호)은 엔터테인먼트 스페셜(사회 정의)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웰메이드 환경예능 <공생의 법칙> 시리즈는 2022년 263회, 271회 한국PD연합회 '이달의 PD상' 2회와 GCAF(Global Climate Action Fund) Award를 수상하였고, 작년 4월엔 세계 최대 방송 콘텐츠 마켓 MIPTV에 소개되는 등 국내외 무대에서 호평을 받았다.

<가디언즈 오브 툼드라>(연출: 장경수)는 다큐멘터리(환경 및 생태학)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가디언즈 오브 툼드라>는 2022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과 2022 뉴테크융합콘텐츠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장경수 PD는 제49회 방송대상 프로듀서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곰손카페>, 장경수 PD - 한국PD대상



<방 탈출 프로젝트 곰손카페>(연출: 배진희)가 제35회 한국PD대상 TV부문 실험정신상을 수상했다. 한국PD대상은 방송을 통해 자유언론과 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한 PD와 방송인에게 주는 상으로, 실험정신상과 작품상, 출연자상 3개 부문으로 나뉜다. 현지 PD들이 심사해 더욱 의미가 크다.



장경수 PD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33년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해, <최후의 툼드라>, <최후의 제국>, <가디언즈 오브 툼드라> 등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를 선보인 공이다.

한편, 라디오 진행자상은 <배성재의 텐>을 이끌고 있는 배성재가 받았으며, TV-작가상은 <그것이 알고 싶다> 신진주, 정문명 작가가 받아 기쁨을 더했다.

4월 17일(월)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시상식은 오는 26일(수) MBC를 통해 방송된다.

SBS 플러스

<당결안>, 극강 리얼리티로 <나는 솔로> 잇는 히트 예감



올해 초 방송돼 큰 화제를 모은 부부 합숙 리얼리티 프로그램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이하 <당결안>) 2기가 새롭게 출범했다. 4월 18일(화) 밤 10시 2기 첫 방송을 시작한 <당결안>은 재미도, 리얼리티도 한층 더 살아났다는 평이다.

먼저 'MC들의 현장 투입'을 눈여겨볼 만하다. 대부분의 일반인 리얼리티는 촬영된 영상을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는 형식이다. 하지만 <당결안> 2기는 MC들이 직접 합숙 현장에 들어가 출연 부부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냈다. 박은혜는 아내들 방에서 먼저 싱글맘의 고충을 털어놔 아내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아내들의 고민을 들으며 함께 눈물짓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상진과 정혁도 남편들 방에 들어가 그들의 고민을 끌어냈다.

두 번째, 새롭게 MC로 합류한 한상진이 공감의 영역을 넓혔다. 한상진은 남편 방과 아내 방에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이들의 소통을 위해서 MC들이 할 일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제작진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MC가 녹화장에 투입돼 출연자들과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당결안> 2기는 성공적인 형식이자 시도"라고 자평했다.

한편 <당결안>은 TRA 미디어가 운영하는 채널 SmileTV Plus(스마일티브이플러스)와 공동제작을 통해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했다. <당결안>이 <나는 솔로>를 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BS D&P

SBS D&P 출범 - 미디어넷 광고와 골프닷컴 마케팅 전담

2023년 4월 1일(토) 자로 SBS D&P가 새롭게 출범했다.

SBS D&P는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마케팅 전문회사를 목표로 한다. D&P는 Data & Play의 줄임말로, 콘텐츠가 생산, 소비, 유통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험과 직관에 Data를 더하고' 이렇게 생성된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재생하고 놀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소비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사업영역은 미디어넷의 광고와 '골프닷컴'의 마케팅 전문 회사로 시작했다. 방송, 디지털, 협찬 등의 통합 마케팅 영역에서 전문성과 통합성을 발휘하고 '골프닷컴'은 골프 콘텐츠에 대한 D2C 플랫폼과 골프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분석 및 인사이트 발견, 자동화된 마케팅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SBS D&P 정영철 대표는 "SBS D&P는 업의 특성과 지향점을 고려할 때 그룹 내 많은 회사들과의 협업 및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룹 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